맥주·공연 어우러진 강진 축제의 장 마련

군, 27~29일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서 '하맥축제'

폭염 대응 입장 시간 오후 5시 조정…셀프존 확대

지난해 열린 제3회 강진하맥축제 행사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맥주축제가 올해도 강진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7~29일 3일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강진하맥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 안내부터 좌석 운영, 맥주 제공, 교통, 폭염 대응까지 분야별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축제는 폭염 속 관광객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고려해 축제장 입장시간을 지난해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췄다.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한 관광객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도착 순서대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축제장 주변에 마련된 물놀이장과 펌프게임장, 각종 행사 부스를 이용하며 더위를 식히고 축제 분위기를 미리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석은 6인 기준 15만원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용 좌석과 공연 관람, 맥주 무제한 이용이 포함돼 있어 일반석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사전예약석 이용객에게는 변온컵과 강진사랑상품권 2만원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사전예약석은 축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 좌석이 이미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 좌석도 잔여석이 많지 않아 사전예약석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좋다.

맥주 제공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강진군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맥주 제공 부스의 셀프존을 확대하고, 이용 동선을 분산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맥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여름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폭염 대응에도 힘을 쏟는다. 강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이동형 음수대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축제장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음식점이나 배달업체를 통해 주문한 음식은 반입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강진하맥축제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시간 조정, 사전예약석과 일반석 운영, 맥주 제공 공간 확대, 이동형 음수대 설치, 무료 교통편 운영 등 현장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관광객들께서 시원한 맥주와 공연이 함께하는 강진의 여름밤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진도, 찾아가는 건강버스 '원스톱 건강서비스'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의료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재까지 27개 마을에서 59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있다. 특히 단순한 건강검사에 그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건강 위험 요인이 발견된 주민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 '원스톱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자전거 타고 해남의 문학·자연 만난다

군, 내달 4~6일 '사유로 해남 자전거 여행' 운영

고산윤선도박물관~땅끝순례문학관 체험 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인문학 유산과 수려한 자연풍경을 자전거로 천천히 둘러보는 감성 문화투어 '2026 사유로 해남 자전거여행'이 운영된다.

'사유로(Slow Biking, Deep Thinking)'는 자동차보다 천천히, 걷기보다는 자유로운 속도로 해남의 이야기와 풍경 속을 안전하게 달리는 시민 참여형 당일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행은 해남의 대표적인 인문학 거점을 전문 가이드·도슨트 해설과 함께 탐방하도록 구성됐다. 기간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박물관과 땅끝순례문학관 투어로, 자연을 노래한 고산 윤선도의 삶과 작품, 녹우당의 역사와 문화를 도슨트의 풍부한 해설을 통해 만난다.

또 땅끝순례문학관을 찾아 땅끝을 거쳐 간 작가들과 시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지리적 끝자리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땅끝'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차별화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학관 감상 후 해남의 꽃과 문학적 문장을 활용해 자신만의 기념 꽃 카드를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전거 및 헬멧 등 안전장비와 도슨트 투어, 체험 프로그램, 음료 및 디저트가 일체 제공된다.

참가자는 투어 종료 후 개인 SNS(인스타그램)나 온라인 플랫폼에 해남 여행 후기를 남기는 '시민 참여형 홍보'로 참가비를 대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은 땅끝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수려한 자연과 인문학적 유산이 어우러진 자전거 여행의 최적지다"며 "사유로 자전거 여행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학을 즐기며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시청에서 '목포관광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목포, 관광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관광환경 변화 대응…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전략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시청에서 '목포관광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 목포 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는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해 목포시의회 의원, 관계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인 국립목포대학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의 과업 수행방향과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과업은 관광환경·관광시장 분석, 관광수요·관광객 행태 분석, 관광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수립, 관광자원 개발·관광콘텐츠 발굴, 관광수용태세·관광환경 개선, 관광마케팅·관광객 유치 전략,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관광사업 실행계획 마련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도 77호선 개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반영하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목포의 관광환경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광특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목포 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 관광의 미래 5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력 있는 관광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목포만의 경쟁력을 살린 글로벌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완도타워 방문객 10만명 돌파

다도해 조망·영상 체험 등 인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대표 관광 명소인 완도타워의 올해 누적 방문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0만명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일 빨리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8년 9월 문을 연 완도타워(완도읍 장보고대로 330)는 해발 132m에 연면적 1872.91㎡, 타워 높이 76m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51.4m 높이의 전망 층에서는 탁 트인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홍보·영상 체험관,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하절기(6~9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10~5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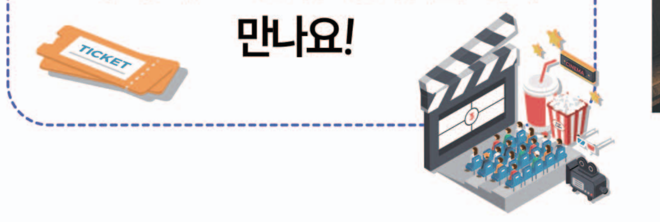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입장은 마감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과 군민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다.

20명 이상 단체는 500원이 할인되며, 완도군민을 비롯해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확인증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완도의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